

도외 기업만 배불리는 그린수소

이달부터 그린수소 생산... 내달부터는 공급 본격화
행원리 생산단지·충전소 운영 등 육지부 기업이 독식
도내 기업 토목·전기 공사 그쳐... 기술 이전도 난망

이달부터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린수소 생산이 이뤄진다. 하지만 그린수소 생산 설비와 저장 시스템 구축 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그린수소 공급은 다음달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이달말까지 제주시 행원리에 3MW급 그린수소 생산 단지를 구축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비 204억원(국비135억원·민간 68억원)을 투자해 3MW급 수전해 시스템 설계 구축 및 실증, 그린수소(600kg) 생산 및 배터리(2MWh) 저장 시스템 구축 및 실증,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을 실증·운영하는 사업이다.

이곳의 그린수소 생산 시설은 알카라인 방식, 국내 펌(PEM)방식·해의 펌 방식으로 3가지 방식으로 구축된다.

이 가운데 알카라인·국내펌 방식에 대한 공사는 진행되고 있으나

해외펌 방식 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펌 수전해 설비 국내 반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4-5월 중 제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행원리 그린수소 생산 단지에서는 일단 이달부터 알카라인·국내펌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시범 생산할 예정이다.

이중 알카라인 방식은 알칼리 전해액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초기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용량에 적합하다.

국내 PEM(고분자 전해질막) 방식은 알카라인 수전해 방식 대비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부하 대응 능력이 우수해 전원 공급이 들쭉날쭉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린수소 생산 단지에서는 이 3가지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면서 경제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는 함덕리 수송연료공급시설(함덕리 수소충전기)에서 공급된다. 이곳 수

소충전소의 하루 총 수소충전량은 최대 1200kg/day이다. 수소버스 차량 기준으로 충전량은 약 25kg/대이며, 운영기간중 충전가능 대수는 약 하루 48대이다. 그린수소는 우선 수소버스에 공급할 예정인데, 상반기 9대·하반기 11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린수소가 제주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기술 이전과 도내 기업 참여가 이뤄져야 하지만 도외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 그린수소 생산단지 운영은 '지필로스'가 전담하고 그린수소 충전소 운영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맡게 된다. 도내 기업은 토목·전기 공사 참여에 그치고 있다.

한 도내 기업인은 "육지부 기업들이 그린수소를 생산해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그린수소는 전기에너지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제주에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SPC를 설립해 그린수소 생산 단지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제주 실증이 전국 지자체의 그린수소 보조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제주시 경제소상공인회,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관할 행정시와 읍·면(산업·소득지원팀)사무소에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하면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쑥-쑥 자리거라!” 시나브로 봄이 시작되고 있다. 산과 들녘 곳곳에선 새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2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새봄을 맞아 모종 파종 후 비닐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제주권역 신설을”

국회서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세미나
'국내물류기간망-제주권역 연계·수송' 등 의견 제시

제주 해상운송비와 물류비 지원을 위해 국가물류기간망과 제주권역을 연계하고,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제주 권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제주도는 지리적인 여건에 따른 해상운송비 부담과 물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물류 분야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 또 제주는 육지 지역과 달리 국가물류기간망과 연

계되지 않고, 법령상 도서지역에도 속하지 않아 물류에 대한 지원이 소외되어 있다.

공산품의 경우 타 시도 지역과 가격 차이는 없으나, 제주도내 소비자들이 주문해 배송되는 경우 추가배송비를 부담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내륙지역과 비교해 택배 배송비용이 높다. 택배 서비스도 제주 배송을 이유로 도선료나 하역료가 발생하는 경우 실비 청구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주지역 농산물을 출하할 때도 해상운송비가 추가돼 육지 농산물 대비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

2018년 조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산물의 육지출하량(84만9890t)의 해상운송비 총액은 713억9000만원으로, 인천(264톤·1700만원), 전라남도(11만640t·24억8900만원), 경상북도(1475t·6억69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날 '해운선사 공적기능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권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가물류기간망에 따른 국가물류기간망에 물류 비중이 작은 제주 배제"라며 "제주 반·출입 화물이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제주 권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헌기자 bu6385@ihalla.com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도,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고객편의 시설 등의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에 총 90억 원을 투입하는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공모하고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의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

신청 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조합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6월 1~30일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제주시 경제소상공인회,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관할 행정시와 읍·면(산업·소득지원팀)사무소에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하면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소나무 병해충 기승... 4면 / 4년 만의 대면 입학식 ... 5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23 대한 영성문화 대축제
The True Face of Korean Spiritual Culture

지금은 병란 개벽기, 나와 가족의 질병을 물리치는

무병장수 선려화 치유수행

말씀·전수 안경전 종도사

2023. 3. 4.(토) 오후 3시 제주 한라대학교 컨벤션홀
STB 상생방송 (KCTV374, KT241, LG277, SKY185)

모시는 글

지금은 병란 개벽기, 나와 가족의 질병을 물리치는

무병장수 선려화 치유수행

仙 侶 花

현재 지구촌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는 와중에 건강회복과 무병장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증산도에서 도문에 전승되어온 '무병장수 선려화仙侶花 치유 수행법'을 공개 합니다.

『선려화仙侶花』는 삼신조화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빛의 꽃'으로 인간의 질병치유 및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활력을 충전시켜 건강회복과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오시어 '광명한 빛의 꽃, 우주 조화의 신선꽃'인 선려화仙侶花를 전수 받으시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질병을 극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조화선 문명 명상포럼 제주지부 드림

STB 상생방송과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됩니다.
문의. 010-3927-7748, 010-6634-9330